

건축비평 _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거점센터 우연한 건축현상의 지속가능성

Architecture Criticism
Sustainability of Accidental Architectural Phenomena

글. 최종철
Choi, Jongchul
여주대학교 건축과 교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Faralda NDSM 크레인 호텔'이라는 독특한 호텔이 있다. 1894년에 만들어져 1979년까지 암스테르담 조선소에서 사용된 오래된 크레인을 개조하고 컨테이너를 객실로 활용하는 호텔이다. 해발 5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도시와 저녁노을을 감상할 수 있으며, 90미터 높이의 크레인에 매달려 그네를 타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인기 있는 호텔이다. 이 독특한 호텔 건립의 발상은 폐기될 고철을 재활용하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크레인 호텔은 크레인이라는 기계장치와 다량의 상품을 담는 컨테이너가 성공리에 건축적으로 활용된 대표적인 경우다. 경제용어인 컨테이너는 '화물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자형 용기'로 정의된다. 화물 수송선에 싣기도 하고 트럭에 싣기도 하기 때문에 2.4미터의 폭이 반드시 유지되면서 일정한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제로 만들어진다. 이런 컨테이너를 건축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크레인 호텔에서 본 것처럼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가치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 건축은 새로운 조합 형식들이 고안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재활용의 의미를 넘어 별도의 가치를 획득한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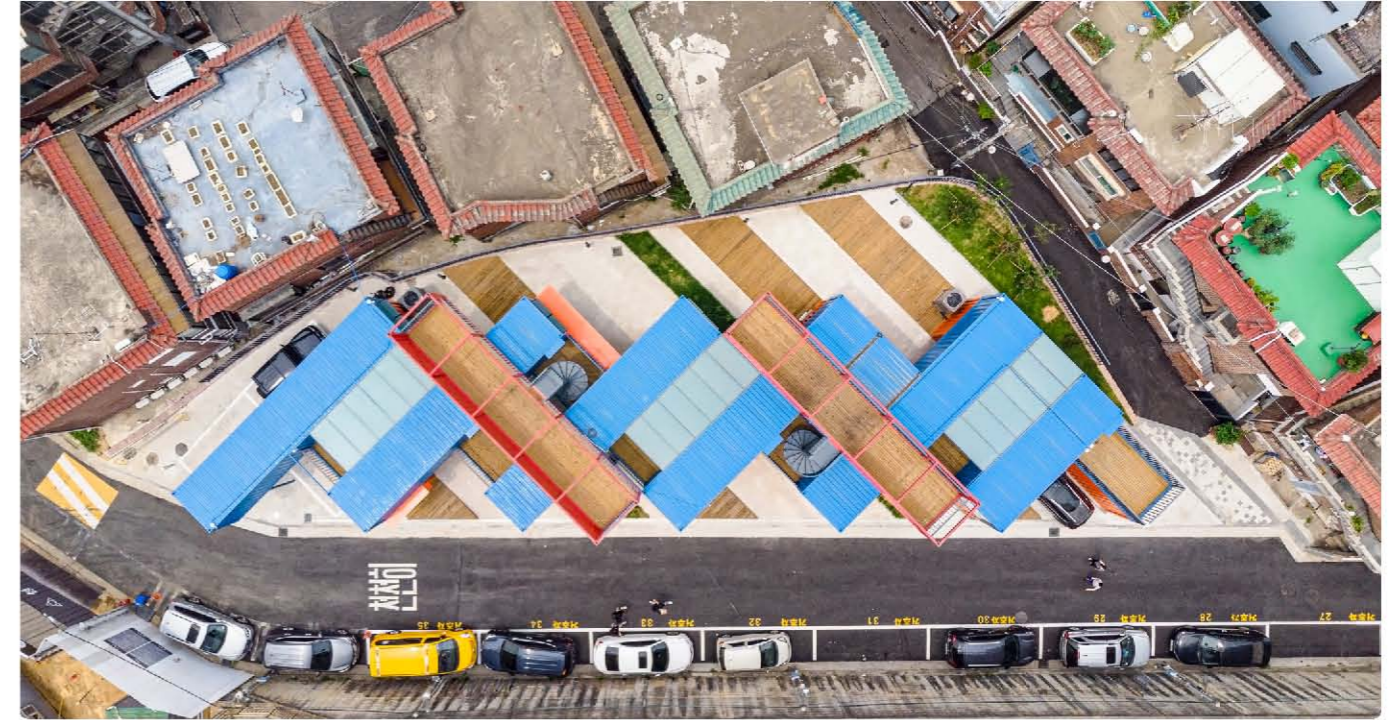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로 건축되기 시작한 컨테이너 건축들은 경제적이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 형태적으로도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곳으로 인식되어 건축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재활용'이라는 당초의 의지와는 달리 하나의 새로운 건축형식으로 정착하는 듯하다. 규격의 변화와 개구부 형식, 설비형식의 변화가 수반된다. 3.6미터의 모듈 크기가 개발되고, 벽과 지붕의 변화를 통해 확장된 공간감을 연출한다. 빈티지한 외부 이미지와 깔끔하고 다양한 색감의 내부공간은 사람들에게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부여한다. 외부 벽을 들어 올려 매장을 확장하면서 공간의 융통성을 부여하며, 태양광 패널을 부착

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이제 컨테이너는 주거도 되고, 상가도 되고, 사무소도 될 수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의 산물인 컨테이너는 산업화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면서, 산업화 시대의 향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되면서 공간적 가용성과 색감에 도움을 받아 자체의 형태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어차피 어떤 재료이든 형태나 공간적인 변화의 한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컨테이너 건축 역시 공간과 형태상 변화의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으나, 특성을 고려한 형태와 공간을 유지하면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만한 일이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목적에 맞추어 활용되는 방안만 나온다면 공간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태생적인 산업화의 산물이라는 이미지도 오히려 흥미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세종대학교 지역거점센터는 대학에서 주도하는 창업보육센터이자, 대학의 또 다른 사명 중 하나인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시된 작품이다. 장소의 의미와 공간의 용도, 프로그램상의 특별함을 포함하여 작품은 태생적으로 컨테이너 건축에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예산의 투입,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철거될 가능성이 있는 형식에 대한 수요, 예산 투입과 더불어 요구된 지역 활성화, 젊은이들의 창업공간으로서 기능적 요구 등은 건축 구상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컨테이너에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하였다. 이미 타 대학에서 시도하여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형식이 확정되었다. 이후 설계는 장소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 공간적 변화와 조형적 가치를 높이는 구성과 색감을 정하고 설비적 성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거점센터> 전경

© 김창욱

항공사진으로 파악되는 모습은 작품이 지역적 특성과 프로그램에 비추어 더없이 적절한 형식으로 땅에 녹아들었음을 보여준다. 고만한 주거건축들이 규칙적으로 나열된 오래된 주거지역과 상대적으로 크고 비 규칙적인 대학 캠퍼스 사이에서 부지는 사다리꼴의 뺨기처럼 두 영역을 매개하고 있다. 부지 형상의 특징과 법적인 규제를 준수하면서, 컨테이너들은 합리적이면서도 매개공간의 특징을 흥미롭게 연출한다. 실제로 활용되는 컨테이너를 그대로 활용하여 공간의 기본 모듈은 2.4미터이다. 하지만 좁아 보이는 모듈은 일종의 샌드박스인 연구실로는 합리적인 치수로 인정된 듯하다. 사용자들로부터 특별한 불평이 없고 경쟁적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1층은 정해진 모듈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면서 의외의 큰 공간을 형성하기도 하고, 수직적으로 연계되면서 시원한 높이의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상호 교차되면서 2층으로 포개 컨테이너들 사이의 외부공간은 내부와 연계되면서 의외로 넓고 다양하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효용 가치가 높은 공간이 되었다. 건물은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고 땅도 훨씬 넓게 만들었다.

개별 작품에 대한 세인들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일반적 컨테이너 건축의 한계를 여전히 간직한다. 기대되었던 경제성이 확보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내구성의 관점에서 가설의 한계는 그대로 남아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그 형식이 무엇이든 공사비와 공기절약의 효율성을 우선 생각한다. 하지만 요구되는 단열성능과 구조적 보완, 설비가격을 생각한다면 결코 경제적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잘 된 도색을 전제로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건물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새로운 형식에 대한 흥미를 토대

로 제한된 형식을 거부하기 어려운 건축사들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주어진 제한은 디자인을 위한 모티브이자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컨테이너 건축은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 건축의 흐름 속에서 단위와 집합의 논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1960년대 유기적 생물학적 성장을 융합한 일본의 메타볼리즘(metabolism)이나 시간에 의해 의미가 획득된 단위 요소의 조합으로 전체가 구성되는 유럽의 유형학과는 궤를 달리한다. 생물학적인 증식이 가능하지만 거대 구조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공업화의 산물이지만 공업화의 폐단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공업화에 대한 기억은 갖지만 도시와 건축에 대한 기억은 없다. 무엇보다 지속성에 대한 담보가 없다. 그래서 컨테이너 건축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컨테이너의 건축적 효율성은 재활용의 가치나 단순한 미학적인 흥미를 벗어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다양한 조건에 대한 유연한 적응,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의 확보, 친환경성, 재료적 한계를 극복한 내구성을 지닐 때 건축의 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철 여주대학교 건축과 교수
"건축사(가)는 작품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보편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개별건축의 도시적 기여에 고민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근현대 건축이론에 심취하였으며, 이후 한국 전통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견지하고 있다. 석사 이후 공간사 편집부를 거쳐 설계를 하다 대학에서 건축설계를 강의하고 있다. 여주시립도서관을 비롯한 다수의 작품이 있다.

jongchul@yit.ac.kr

First view from the front

We intended to draw the collection of independent houses like vertically long row houses. From the front road, three houses look attached. Two trapezoidal places from the left follow the rectangular house. There is a small stair hall protrude between two trapezoidal houses. Based on the staircase, the two trapezoidal houses are ten degrees apart. That's the reason why the facade of the house looks different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The long horizontal void is ope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floors of the house, dividing the upper and lower parts vertically. Through this architectural proportion and rhythm, the lower part emphasizes horizontality and the upper part floats in the air. The long vertical void is applied to the external stair hall. This design language secures the view of the vertical circulation and emphasizes the verticality of the house divided by architectural proportion.

Design intention: Searching the independent residence from common residence

Under the Building Act, multi-family housing is one of several sub-categories of detached houses. In the form of multiple households living together in a residential area of which ownership is one, it has an advantage of continuing maintenance because there is a management entity. On the contrary, residents are given a multi-generation similar living environment, so it seems appropriate to design in the form of joint residence.

If people should reside together, wouldn't they like to minimize unnecessary interference in their lives and the lives of others? Therefore, we determine to reduce the common area for the minimized intervention in each household's circulation and living area. Rather than separating the homes horizontally, we select the method to separate the home vertically. This design can minimize the floor noises from the common place of the residence and secure the separate entrance. In addition, the independent circulation is guaranteed.

The individual external space is also designed to secure the distance of the living area.

Design process: composition of program

The direction of design is set with the goal of independent life of each household. Instead of stacking furniture like a general multi-generational house, the furniture is divided vertically like a row house. Here, the number of homes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ite's width and the household's housing module. (Trapezoidal site shape: front width 20 meters, rear width 16 meters / depth 21 meters)

The composition is possible for up to 5 households depending on the district unit plan and guideline. However, the restriction on the floor numbers is maximum three floors.

Based on 16m, the minimum width of the site, three rental units are placed with the double floor (1st-2nd floor) row house type according to the site's shape. In the wedge shape void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front and rear width, the courtyard, which is the windpipe of the building, and the core(stair, elevator) for the upper part residence are placed. 2 pieces of furniture are placed in the 3rd floor. The leaseholder's space using two modules, and the tenant's space using one module is set around the courtyard.

The final five households were confirmed as three double floor type households using the lower floors (1st and 2nd floors) and two single-story homes using the third floor.

Five houses: five years

5 houses have their external spaces respectively.

The lower-floor households can take on various lifestyles through the rear terrace that extends into the outside greenery. For example, it can be used as a reading nook to take a break, barbecue time to enjoy with the family, and a buffer deck that connects the outdoor greenery and the indoor space.

The rooftop decks apply to 2 upper-floor households. The expansive rooftop deck of the leaseholder adopts one housing module, making various external spaces possible. The tenants' homes in which two decks are applied at the front and rear are designed to customize according to residents' utilization.

Five yards (external space) divide the living area of each household and create the appropriate distance.

Separately and jointly: Porch and stair & elevator

The entrances are separated. Minimizing the shared space in the multi-family residence can bring the merits of a high utilization rate, meaning the independence of each resident is better guaranteed. In addition, unlike the entrance connected vertically through the core (stair & elevator), the lower floor households can enter the house through their porch.

The porch spaces formed with a two-story cantilever structure and a fake front wall provide the residents with psychological comfort and extra physical spaces. It also provides an extra space to store bicycles, strollers, or various items necessary for outdoor activities. The independent living space becomes closer through the separated moving line and the separate transition space of each household.

**The transition space means the space that buffers 2 spac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balcony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space also applies.*

Rooftop deck + attic + design intention = 2 \wedge shape roof

The encounter of 3 reasons has brought the current \wedge shape roof.

1. Rooftop deck (Providing the external space to upper floor households)

We selected the location of the rooftop deck of the leaseholder's household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the due north slanted line. The open space to the west is secured. The roof deck of the tenant's household uses two points of extra space, one at the front and the other at the rear, respectively, to face the courtyard.

2. Attic (How to solve the limit on the number of floors below 3 stories)

The attic is needed to design the space expanding from indoor to rooftop deck. In an attic with (indoor) height restrictions, I think a slanted roof is necessary, not an option. Rather than using a general-purpose room (RM), it is applied as a communication space connecting the roof deck and the interio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ttic, which is defined as a buffer space, storage space, and alpha space.

3. Design intention (Realizing the view of vertical shpe row house)

Along with three houses connected vertically, two slanted roofs are essential to design languages that lead the entire building. It makes two houses look like substantial trapezoidal houses and

suggests design direction with the vertical building. Other intentions, arbitrary interpretations, may adopt flat roofs, gabled roofs, and slanted roofs (in different sloping directions). However, according to our design direction, which avoids arbitrary interpretation, practical design is taken to secure indoor and rooftop deck approaches. As a result, a slanted roof with an architectural rhythm is applied in the west direction.

** The attic area is excluded from the total floor area. Therefore, the average indoor height of the attic should be within 1.8 m.*

Exterior building material : vertical shape and horizontal shape texture

Although the shape of the actual building is horizontally long, the design intention is vertical.

According to the design technique and design intent, I induced the house vertically. The exterior material runs horizontally so that the texture could express itself. I wanted to make people feel its layer while stepping up the texturing step by step. At the same time, I wanted it to look like a vast mass of texture. For this purpose, white joints similar to white bricks were applied so that the textured layers do not have directionality. This is because when the material has directionality, the material becomes focused and disturbs the whole.

1. 배면 2, 4. 주인세대 주방 3. 임대세대 주방 5. 임대세대 침실

